

[취재] 넷이벤츠 인터뷰 : 스파이런트 윌리엄 번스 CEO

2011.04.11. 20:37

지난 2011년 4월 6일과 4월 7일 양일 간, 말레이시아 랑카위 안다만 호텔(The Andaman Hotel, Langkawi, Malaysia)에서 '2011 넷이벤츠 아시아태평양 기자간담회(2011 NetEvents APAC Press Summit, 이하 넷이벤츠)'가 개최되었다.

넷이벤츠는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기업의 C 레벨 임원들과 관련 시장조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업계 동향 및 각 기업의 전략 등을 소개하는 정기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IT 보안, 무선 기술, 영상 회의,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망, 통신 인프라 등 업계 이슈에 관한 기업 및 시장 조사기관의 발표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넷이벤츠는 키노트 등으로 구성된 정규 프로그램 외에, 연사들과의 인터뷰 순서가 양 일간에 걸쳐 마련되었다. 아크로펜은 대한민국 공동취재단의 일원으로, 스파이런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CEO와의 인터뷰 세션에 참여했다. 이번 인터뷰에는 진 장(Gene Zhang, 아래 사진 왼쪽) 아태지역 VP와 닐 앤더슨(Neil Anderson, 아래 사진 오른쪽) 글로벌 서비스 VP도 참석했다.



스파이런트(Spirent)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업계를 위한 테스트 솔루션, 데이터센터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핸드셋, 모바일폰, 네트워크 장비, 서비스 등에 두루 제품군이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이든, 4G 네트워킹이든 미지의 부분을 없애주는 것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현재 런던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며, 심볼은 'SPT.L'이다. 시가총액은 16억 달러로, 작년도 총매출이 4억 8천만 달러 수준이다. 7500만 달러를 R&D에 투자한 스피어런트는 글로벌 기업으로, 1400여명 정도 직원이 있다. 1300여 고객을 상대하고 있으며, R&D는 주로 미국에서 진행된다. 북경과 영국에도 각 1개소 씩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스피어런트는 IP, 인터넷 솔루션 관련 테스트 장비 및 솔루션 제조업체에서 리더로 다수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표준 테스트와 성능 테스트를 주요 테스트 카테고리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4대 영역으로 고객층이 구분되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핸드폰 제조사 : 삼성, LG, 팬택 등이 한국 주요 고객.
- 2) 서비스 프로바이더 : 전 세계 티어1, 티어2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모두 스피어런트 솔루션 씬. 한국 이동사도 주요고객.
- 3) 항공/국방/우주산업 등 자체 망 가진 고객 : 방산업체들이 주요 고객군.
- 4) 인터넷 서비스업체 및 금융권 : 구글, 이베이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



Q1. (아크로웬) 오실로스코프 업체를 보면, 4G 이동통신 부품 검수와 관련해 사양이 대폭 올라간 점이 특기할만한 부분이다. 스피어런트 테스트 솔루션들도 4G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2G, 3G 시절에 대비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소개해 달라.

지금 스피어런트에서 테스트 표준을 제정하는 업체가 아니고, 캐리어나 표준 제정기구에서 표준을 만들면 그걸 따라가는 회사다. 4G에서 버라이즌 등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함께 공조를 해서 표준들을 만들고 있다. 스피어런트는 이런 표준을 따라간다. 그래서 LTE 테스트 솔루션을 만들었다. 이는 4G 테스트 솔루션인데, 전혀 새로운 솔루션으로 나왔다. 사양 올려서 강화한 건 아니다.

Q2. (아크로웬) 애질런트에서 계속 솔루션 발표를 하는 등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한국에서의 활동 계획은 있는가?

많은 발표가 있다. 금주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테스트 장비를 AT&T가 로드테스트한다는 발표고, 다른 하나는 차이나모바일이 파이버채널 모바일 네트워크 검증을 스파이런트 솔루션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애질런트 발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한국 내에서 스파이런트가 갖고 있는 시장점유율과 삼성/엘지/팬택 등 한국 고객과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애질런트는 계측 및 검증 비즈니스가 20억 달러 규모로 큰 회사다. 스파이런트는 애질런트 사업부문 중에서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부문이라는 좁은 부분에서 경쟁하고 있다.

Q3. 기지국, 펌토셀 장비 등에 대한 트래픽 부하 테스트 솔루션도 있는지 궁금하다.

있다. '랜드 슬라이드'(Landslide, 산사태)라는 이름의 솔루션이 있다. 기지국, 펌토셀 등 무선 인프라 테스트를 하는 솔루션이다. 큰 문제를 감당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라서 '산사태'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다.

<http://www.acrofan.com/ko-kr/live/content/?mode=view&cate=0303&wd=20110411&ucode=0803030205&page=1&keyfield=&keyword=>